



독일,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경고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G20은 10월 15일 재무장관·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친 뒤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유럽 정상회의까지 당사자인 유럽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함.
 - G20은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23일까지 유로존 회원국들이 의견 격차를 해소하고,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함.
 -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10월 유럽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
- 금번 유럽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, 그리스 민간부채 상각, 은행자본 확충,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 활용방안에 대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임.
 - 유로 규모의 그리스 6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.
 -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단에게 21% 보다 높은 30~50%의 손실을 요구하려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임.
 -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단은 추가 손실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함.
 - 국가별로는 독일, 네덜란드 등 7개국은 민간채권단의 손실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,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(ECB) 등은 반대함.
 - 독일 재무장관은 10월 16일 민간채권단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함.
 - 또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.
 - 주변부 국가 국채 매입액의 20~30%를 원금 보전해주는데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아직 합의되지 못함.

■ 그러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에 경계심을 드러냄으로써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은 금번 회의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월 17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‘모든 것이 다음 주 월요일(10월 24일)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’이라고 언급함.
-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정부들이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5가지 항목의 강령을 채택할 계획이나, 정상회의에서 결정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.

(Wall Street Journal 10/17, Financial Times 10/16)